

동구 내달 3일, 서·광산구 내달 11일 경선

민주 광주시당 구청장 경선 방식·일정 확정 전남 무안·여수·순천 제외 19개시군 참여경선

민주당이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일정과 경선 방식을 확정하는 등 공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5일 오후 당사 회의실에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광주 동구청장 후보 경선은 다음달 3일, 광산구와 서구청장 후보 경선은 다음달 11일 치르기로 했다. 장소는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당 선관위는 이날 중앙당이 시민공천배심원제 실시 지역으로 선정한 남구와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방식을 결정하기로 한 북구를 제외한 광주지역 3곳의 경선일정을 확정했다.

동·서·광산구 등 3개 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직접투표 결과와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원 선거인단 구성은 우대당원(2009년 6월 이전 입당 후 지난해 9월 이후 당비 체납이 없는 당원) 50%와 일반 당원 50%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천여 명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당 관계자는 "선거인단 규모가 너무 적으면 대표성이 없고, 너무 많으면 동원 등의 폐해가 있어 우대 당원을 중심으로 1천여 명 내외에서 결

민주당 광주 구청장 경선일정 및 방식

지역명	경선일	경선방식
동구	4.3 오후 1시	당원 선거인 투표 50% + 시민여론조사 50%
서구	4.11 오후 4시	"
남구	미정	시민배심원제
북구	미정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광산구	4.11 오후 1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 시민여론조사 50%

※아권연대로 1곳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변동될 수 있음

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도 17일 3차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전남 기초자치단체 경선방식과 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22개 시·군 중 시민배심원제도 적용 지역으로 선정된 무안군과 지역위원회가 시민배심원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여수·순천에 대해서는 경선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19개 시·군은 당원과 주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참

여경선으로 치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또 17일~23일까지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서류심사와 면접,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 압축 작업을 발의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당원과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태영 데시앙 빌딩에서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분열 또 분열

한화갑 '평화민주당' 창당 선언 민주 공천 파장... 호남표 갈릴 듯

야권이 또 분열했다.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5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민주당은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을 배제한 채 '도로 열린우리당'이 돼버려 한국야당의 정통성을 대변할 자격이 없어졌다"며 "소외당한 민주개혁세력에 문호를 개방, 중도 개혁정당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민당은 서울·인천·경기와 광주, 전남·북 등 6개 시도지부를 창설하며, 내달 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6월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신 계승'을 내세운 국민참여당이 이어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야권 분열'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이 호남에서 파괴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지난 13일 권노갑 감독 이훈평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14명이 가진 회동에서도 논란 끝에 김

경재 한영에 회계승 전 의원 정도만 신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DJ의 최측근이었던 민주당 박지원의원으로 "우리는 분열해서 실패했고 통합해서 승리했다. 이것이 진정한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민주개혁세력을 팔고 있지만 명분으로 보나 참여 세력의 면면으로 보나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여의치 않아 보인다"며 평가절하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 민주당의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무소속 출마 러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창당 선언 직후, 광주일보 기자와 만난 한 전 대표는 "평민당은 '도로 열린우리당' 현재의 민주당 체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민주세력에 문호 개방을 통해 새로운 대

안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 민주당은 DJ 묘소에 방화가 이뤄졌는데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DJ 정신을 팔아먹는 몰염치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 방식과 관련, "공당의 후보 선출을 외부에 맡기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을 것"이라며 "허울 좋은 구호는 결국 허망한 결과만 나오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의 특별당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한 전 대표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특별당비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민당의 출범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확산될 경우, 평민당은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을 대거 흡수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지역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러나,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한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한화갑 신당'이라는 옷을 입으려 할지는 미지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무죄 가능성에 與 좌불안석

전남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제정 청원서 제출

목포경찰서·장애인 단체

목포 경찰서와 전남지역 34개 장애인단체는 15일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조사연구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총칙 등 4개의 장과 32개의 조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의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작성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 신고 활성화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 설치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경찰서 김중익 사무국장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방선거 후폭풍 두려움

광영육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반복이 잇따르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나라당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에 미칠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원희룡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에 그 파장은 사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경력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진이계는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겉으로는 '사법부의 판단과 지방선거는 별개'라며 미리 선을 긋고 나서고 있다.

친이계인 강승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무죄 판결시 한나라당에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사법부 (재판)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렇게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은 정치적으로 제기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오는 4월9일로 예정된 1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수도권 선거에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며 "무죄판결 후폭풍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일까지 겹쳐 지방선거 분위기를 야권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용기자 jkpark@kwangju.co.kr

한 공심위원 "후원금 당분간 사절"

한나라당은 15일 6·2 지방선거 공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과 16개 시도당 공심위원의 후원계좌를 당분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심위원 가운데 현역 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있는데 공심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후원계좌를 심사 기간에 폐쇄키로 한 것은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권 위원들에게 '보형성'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취지다. 앞서 중앙당 공심위원인 유정복 김선동 안희태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후원계좌를 잠정 폐쇄했다.

연합뉴스

회사매각공고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

(계좌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 요리학원

●●● 방문상담대 환영 합니다! ●●●

훈련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계좌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재직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계좌제 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 226-5500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오동동 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간판
배포
공약집
어깨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중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